



3면

신성준 "이 대통령과 호흡 맞는 전북도정 필요"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음 4월 12일) 제3982호

7면

김관영, 군산 찾아 7대 공약 발표



대표전화 (063)288-9700

## 9대 공제회 전북지역 유치 국민연금 연계형 이전 접근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공제회 이전 논의, 회원자산 보호 등 핵심 자산운용·대체투자·회원서비스·양자보안 결합 4대 패키지 제안

9대 공제회 유치는 "공제회를 전북으로 옮길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회원자산을 보호하면서 공적 자산운용 기능을 전북에서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이슈브리핑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형 9대 공제회 전북 유치전략과 이전효과 제고방안'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와 연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9대 공제회 유치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9대 공제회는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행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정공제회 등으로 구성되며, 회원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급여, 대여 복지, 연수 퇴직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공제회는 지방 이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주요 쟁점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 회원 부담금 기반 기관이라는 점, 서울 금융 네트워크 이탈 시 수익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관별 특수성을 무시한 일괄 이전 우려 등이다.

이에 따라 이슈브리핑은 전북의 유치 논리가 단순히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공제회의 공공성, 회원자산 보호, 자산운용 기능, 회원복지 기능,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한 이전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사례는 공제회의 수

익률 저하 우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직전 3개년 평균 수익률은 4.9% 이던 이후 평균 수익률은 8.6%로 나타나, 전북 이전이 수익률 저하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입지한 국내 유일의 비수도권 공적 자산운용 거점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국내 5대 금융주주사의 전북 거점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연금공단 중심 금융생태계가 단일 앵커기관 의존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적 집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슈브리핑은 9대 공제회가 국민연금보다 대체투자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부동산 인프라, REIT, 사모금융 등 대체투자는 팀 발굴, 실사·심사, 금융구조 설계, 리스크관리, 사후 관리, 회수·엑시트 등 전주기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공제회 이전 논의의 핵심은 대체투자 운용 인프라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있다.

이를 위해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대체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의 iCapital, CAIS 등 대체투자 플랫폼처럼 공제회·운용사·증권사·지역 전략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정보·실사·매칭 플랫폼을 구축하면 서울 금융 네트워크 접근성 저하 우려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회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전모델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교직원·군인·과학기술인·지방행정공제회는 국민연금 연계 자산운용 고도화 모델이 적합하고, 한국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재정 리스크 관리, 경찰·소방·교정공제회는 치유·연수·복지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안전교육·직업훈련 거점 기능과 연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슈브리핑은 전북이 9대 공제회 유치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연계 자산운용 고도화, 지역 주력산업 연계 대체투자 가능 확대, 공제·복지 기능 연계 회원서비스 강화, 양자보안·양자금융 실증사업 추진 등 4대 이전효과 제고 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와 연계한 수소·로봇·AI 모빌리티 산업,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린산업 단지, 항만·물류, 농생명바이오 등은 장기 안정형 실물투자 자산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공제회의 투자처 다변화와 전북 전략산업 성장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시백 선임연구위원은 "9대 공제회 이전 논의는 단순히 수도권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공적 장기자금 운용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회는 회원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전북 이전 논리는 회원자산 보호와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전제로 해야 하며,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앵커로 자산운용, 대체투자, 회원서비스, 디지털 보안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는 이전효과 제고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1만호 기자



27일 명일책임해양(주)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기지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인태 전북지차도 기업유치지원실장과 문성요 새만금 개발청장, 김영민 군산부시장, 김문용 명일책임해양(주) 대표,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해상 특수선박 생산공장 새만금에 '등지'

### 명일책임해양, 국가산단에 생산기지 준공

### 310억원 투자, 해상 작업용 특수 구조물 생산

해상 특수구조물 전문기업인 명일책임해양(주)이 새만금국가산단단지에 해상작업용 특수선박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군산시는 27일 명일책임해양(주)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기지 준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와 협력사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공장 준공을 축하하고 생산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명일책임해양(주)은 지난 2025년 6월 10일 투자협약 체결 이후, 새만금 산

단 내 총 310억원을 투입하여 특수 해상 구조물 생산 공장을 완공했으며, 이를 통해 40여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일책임해양의 주력 생산품인 작업바지선은 해저면에 스퍼드레그를 내려 구조물을 고정된 뒤 낮빛이를 조절할 수 있는 특수 해상 구조물로, 해양항만공사와 해상풍력 설치 및 해양플랜트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과 친환경 해양산업 시장 확대에 따라 해상 작업용 특수구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명일책임해양의 이번 투자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해양경제 및 미래 해양산업 기반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명일책임해양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모듈형 조립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지역 제조업의 우수한 사례"라며, "새만금 공장준공은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상풍력과 해양항만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명일책임해양(주)이 새만금을 기반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 김제에 '200억 규모' 국산콩 가공 전진기지 세운다

### 도, 농식품부 공모 최종 선정... 3년간 200억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김제시가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지차도와 김제시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 및 국산콩 수급 조

절을 위한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논리화해 얻어낸 결실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80억·도비 16억·시비 64억·자부담 40억)이 투입된다. 단순 원물 생산 중심이었던 지역 콩 산업을 가공·연구·채집·관리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핵심 시설은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일원에 조성되는 '콩 가공센터'와 '융복합센터'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농생산업지구 예비지구인 '공평동 김제 농산단지' 거점지구 조성 계획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것으로 전망된다. /01만호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관외선거인 | 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

관내선거인 | 자신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

2 투표용지 7장과 회송용봉투 받음 (세종·제주 4장)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4 회송용봉투를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음


투표지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

투표용지 7장 받음 (세종·제주 4장)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

• 투표 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두 명 이상에게 기표시 무효)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 사전 투표 안내


**일시**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위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캡처 등 저장 이미지 사용 불가)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nec.go.kr)에서 확인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